

안정적 에너지 공급

에너지 공급기반 강화와

해외 자원개발 확대 -

SK에너지는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유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을

위해 산유국과의 전략적

네트워크 구축과 도입선

다변화를 통해 해외

자원개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대한민국을

에너지 강대국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전략적 네트워크 구축과 도입선 다변화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석유 수입국으로 세계 석유 시장에서의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매년 3억 배럴 가량의 원유를 들여오고 있는 SK에너지는 해외 에너지 업체들과의 협력 및 산유국과의 유대 강화 등을 통해 전략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비상시 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석유 비축을 늘리는 한편, 원유를 안정적, 경제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기반을 확보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적정 수준의 장기 도입 비율을 유지하고 유럽과 아프리카 등으로 도입선을 다변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탄력적인 공장 가동을 통한 안정적 공급

2010년에는 경기 회복으로 수요처가 확대됨에 따라 석유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CDU(상압 정제시설) 가동률을 70%대로 유지하였습니다. 한편, 주요 화학제품인 PE(폴리에틸렌)과 PP(폴리프로필렌), PX(피라자일렌)의 가동률은 각각 92%, 95%, 100%를 기록하였습니다.

• 에너지 독립국을 향한 석유개발사업의 확대

SK에너지는 국내 최고 에너지기업의 명성에 걸맞게 세계 곳곳을 누비며 석유개발 사업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2010년 말 기준 5.3억 배럴의 지분보유량을 확보했으며 일평균 생산량도 5만9천 배럴에 이르는 등 활발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에는 페루LNG프로젝트의 완성으로 광구탐사에서 생산, 수송을 위한 파이프라인 구축과 가스 액화 및 수출까지 석유개발의 전과정에 참여하는 수직계열 생산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석유개발 브라질 법인을 덴마크의 머스크오일사에 매각하여 보유 광구를 재편성하는 한편 적절한 광구 포트폴리오 구축을 통해 석유개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공장 가동률

	2008년	2009년	2010년
CDU	77%	73%	78%
HOU	100%	100%	100%
#1 RFCC	91%	100%	100%
#2 RFCC	100%	100%	100%
PE	90%	97%	92%
PP	89%	98%	95%
PX	91%	89%	100%

연간 원유 도입량 (단위: 만 배럴)



2008년 2009년 2010년